



#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6년 (단기 4345년) 10월 5일 (수)

http://dongguk.info

제239호

## 총동창회 회원 30만명 시대 열리다

### 개교 110년만에 ... 모교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로 대내외 역량 강화

회원수 30만명. 우리 총동창회가 개교 110주년을 맞아 마침내 30만 회원 시대를 열었다. 본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통칭해오던 25만 동문은 그 이후에 배출된 졸업생 수 등을 고려할 때 배출 동문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모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를 재산출했다.

모교당국에 따르면 2016년 8월26일 현재,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수는 총

25만9천78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중퇴자와 회칙 개정(2015.5.25)에 의해 회원자격이 주어진 모교법인 산하 교육기관인 전자계산원 2만여명을 비롯 모교 교육연구기관인 평생교육원 및 국제어학원, 미국 LA캠퍼스 졸업생, 각급대학원 단과과정 수료자 등을 모두 합산하면 30만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연·고대 등 전통있는 타대학 동창회의 회원 자격

기준 규정을 참고로 한 것이기도 하다. 첫 졸업생은 개교(1906) 2년뒤인 1908년 독립운동가 한용운, 모교 초대총장 권상로 동문을 비롯 10명을 배출했다. 이후 회원 수는 개교 70주년(1976년) 3만명, 80주년(1986년) 7만명, 90주년(1996년) 10만명, 100주년(2006년) 20만명, 2010년 25만명을 거쳐 110주년인 올해 30만명에 이르렀다.

총동창회는 이에 따라 지난 8월25일 서울 및 8월26일 경주캠퍼스 후기 학위수여식의 총동창회장 축사에서 '30만 동문'이라는 통칭을 공식 사용, 선포했다.

총동창회는 30만 회원시대 개막과 함께 모교 발전 동반자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동창회관 건립, 장학사업 확대, 회원 조직 활성화 사업 등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당선 축하모임 “화기애애”

### 유재중·전재수 동문 등 축하회도 함께 열어



▲ 참석자 모두 한마음으로 “용맹정진! 동국화이팅!”을 외치며 동국의 명예와 30만 동문의 위상을 더욱 빛낼 것을 다짐했다.

이정현동문 새누리당 대표 당선 축하모임'이 총동창회 주최, 동공회(공직자 모임) 주관으로 9월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영화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모교 법인이사장 자광스님과 한태식 총장을 비롯한 모교 간부, 공직자 등 각계 동문 7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모교 동국의 명예와 30만 동문의 위상을 크게 빛내준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78/85정외)동문과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81/85경주행정)동문,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재수(90/97역사

교육)동문에게 각각 총장·총동창회장 공동명의로 축하패를 전달했다. 축하대상자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78/96철학)동문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 자광이사장, 한태식 총장 등은 축사를 통해 “우리 동

국대학교에서도 한국을 이끌어갈 큰 인물을 배출하자”면서 “이정현 동문 같은 저력과 끈기,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이정현 동문은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나를 보라’ ‘절대 포기하지마라’라는 말을 자신있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우리 동국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나 국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중 동문과 전재수 동문도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게 국민을 섬기면서 모교 동국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필(82/15행정, 내일신문 정치부장)동문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7080모임 회장 최진식(77/83무역, 심팩 회장)동문의 ‘용맹정진’ 건배제의가 있은다음 만찬을 즐겼다. 만찬시간에는 멀리서 참석한 속초시장 이병선(82/89사학)동문 등 참석자 모두가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덕담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이사장·총장·동창회장은 참석자들의 요청에 의해 단상으로 올라와 ‘일심동행’을 다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정현 동문 인터뷰 9면>

지면  
안내

03면 발언대 05면 KCC·동진기업 견학 08면 문효치 文協이사장 인터뷰 10~11면 동문동정

# 학교법인 이사장에 자광 큰스님 선출

## 종비생 1기 출신 ...“대학 중흥에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39대 이사장으로 자광스님(64/68인철)이 선출됐다. 6월20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린 304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사장 자광스님의 임기는 2016년 6월21일부터 2019년 7월20일까지다.

이사장 자광스님은 “조계종 종비생 1기 출신으로 평소 애정이 많았던 동국대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법인 이사과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학교중흥을 위한 법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광 스님이 새 이사장에 선출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제297회 이사회’에서 “현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임원이 일련의 학내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지 7개월 만에 승려 임원 교체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광 스님은 1959년 경산 스님은 은사로 사미계를, 1963년 자운 을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화엄사, 해인사, 건봉사, 상원사 등에서 수행진했으며,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종비생 1기로 졸업했다. 1970년 군승으로 입관한 스님은 1995년 예편할 때까지 군포교 일선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을 역임했다.

# 총동창회 · 모교 정책위원 ‘단합 과시’

총동창회는 8월25일 서울캠퍼스 기획·교무·대외부총장과 기획처장을 비롯한 10개 처실장 등 모교 정책위원들을 시내 퇴계로 D음식점으로 초청, 노고를 위로했다.

전영화 동창회장은 초청인사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책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모교와 동창회가 손을 맞잡고 학교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를 대표해 신재호 기획부총장은 “동창회가 모교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더욱 활력이 솟

는다”면서 “동문들의 관심사항인 대학 평가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곽대경 기획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 개혁 등의 대학을 둘러싼 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모교는 향후 계획으로 △9월중 교훈 재정립추진위원회 발족 △대형 국제과제 TF팀 조직을 통한 재정지원사업 수주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모교의 재정지원 사업은 SW중심대학 등에 약 287억원을 수주 했다고 밝혔다.

# 김선근·김기유 법인이사 “조속 퇴진” 촉구

총동창회는 8월22일자로 제297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2015.12.3) 결의사항인 이사직 사퇴 결의에 따르지 않는 김선근, 김기유 두 이사에 대해 ‘이사직 사퇴 결의 조속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총동창회는 공문에서 “승려이사님들은 학내는 물론 사회적 약속 이행이라며 임원직에서 이미 사퇴함으로써 대학정상화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모교 발전에 희망을 주고 있다”면

서 “재가이사(개방형)님들은 승려이사님 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임하지 않음으로써 동문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회장=안드레)도 이와 관련해 김선근, 김기유 두 이사의 조속 퇴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원로고문단, 총동창회 집행부 격려



본 총동창회 정재철(49/52정치) 원로고문을 비롯한 전순표(53/57농학), 이석용(54/58정치), 원용선(59/63영문)고문이 전영화 동창회장을 6월16일 롯데호텔 오찬장으로 초대, 집행부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고문들은 “현 집행부가

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동창회를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동문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동창회는 동문중심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동창회의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은 동창회 집행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전순표 고문이 회식비를 부담했다.

# 총동창회 장학금 4천6백만원 전달

## 서울캠퍼스 13명 · 경주캠퍼스 8명 등 총 23명



▲ 전영화 회장이 후배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후배 재학생 23명에게 장학금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 ■ 서울캠퍼스(13명)

△신현주(불교학 3년) △김혜인(중어중문 3년) △박형진(수학 3년) △이은영(법학 3년) △김민지(식품산업관리 4년) △양건녕(경찰행정 4년) △박가람(경영 2년) △조우상(식품생명공학 4년) △김영준(전자전기공학 4년) △현다운(국어교육 3년) △이희선(영화영상 3년) △명노진(약학 5년) △하륜(불교학 3년)

### ■ 경주캠퍼스(8명)

△김기영(불교학 3년) △김효정(영어영문 3년) △윤현성(생명과학 3년) △김지민(행정학 4년) △전건희(경영학 4년) △정지현(수학교육 4년) △장석주(한의학 4년) △이웅희(간호학 4년)

### ■ 특별장학금(2명)

△안드레(정치외교 4년) △신정욱(대학원 철학 3학기)

2백만원씩 총 4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5월25일 오후 7시 모교 중강당에서 있는 정기 이사회에 앞서 3백여명의 동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 여자총동창회 2학기 장학금 지급



여지총동창회(회장=김영순, 65/69 화학, 동국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9월 7일 오후 모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정

희연(미술과 조소전공 3년), 김다희(건설환경공학 3년)양 등 2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충미 수석부회장과 김태현 장학위원장, 조미옥 재무위원장, 김보원 홍보위원장, 안영숙 사무국장, 김상겸 모교 학생처장 등이 배석했다.

# “이연택의 동국장학회 이사 선임 결의 무효”

## 서울지법 “이연택은 소집권자가 아니다” 판결

### 전영화 회장을 적법 이사장으로 법원서 당사자 표시 정정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는 9월27일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주문에서 “이연택씨가 소집한 2014년 10월10일 이사회에서 김규범, 유응중, 형종호, 안채란, 박종윤, 김재기, 박용재, 문병호, 유수택, 나경미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법원 결정에 의해 이연택은 당선 무효되어 동창회장이 아니므로 동국장학회 이사장도

될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그(이연택)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원인무효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피고(동국장학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전영화 회장이므로 전영화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며 “이연택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재판도 중 담당 판사는 이연택은 이사장이 아

니므로 정관상 전영화가 이사장이라고 당사자 표시를 정정했다.

동국장학회는 2014년 3.8 이연택씨 측 동문이 인사동 총동창회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동국장학회 직인과 통장, 회계장부 등을 무단 반출해 감으로써 그동안 활동이 중단되어 왔다. 이제는 법정에서 까지 이연택씨의 행태를 지적하기에 이르면서 동문사회에 “동국장학회가 특정인에 의해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향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 문  
2. 피고의 2014. 10. 10.자 이사회에서 김규범, 유응중, 형종호, 안채란, 박종윤, 김재기, 박용재, 문병호, 유수택, 나경미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송석환, 원고 서영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관배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원 판결문 사본

이 소송은 2015.11. 13 제기되어 6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 장학회 정상화 1인 시위

송인모 동문 60회째 이어가

송인모(83/90경행)동문이 해화동 이연택 전 장학회 이사장 집앞과 신라호텔 입구 등에서 지난 5월26일부터 10월5일 현재까지 60회째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송 동문은 “이연택 전 이사장의 방해로 장학회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시위 이유를 밝혔다.



# QS ‘2016 세계대학평가’ 세계 444위 - 국내 14위

### 4년 연속 순위 상승

모교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9월5일 발표한 ‘2016세계대학평가’에서 지난해 세계순위 501~550위권보다 93계단 상승한 444위에 올랐다. 국내대학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14위(종합대학 기준 11위)를 유지했다.

모교는 △2013년 601~650위권 △2014년 596위 △2015년 537위로 4년 연속 순위가 올랐다.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3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40%)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당 학생비율(20%) △기업계 평판(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

원 비율(5%) 등을 평가한 것이다.

한편, 2016 QS세계대학평가 1위는 MIT, 2위는 스탠퍼드대, 3위는 하버드대가 차지했으며 국내 대학중에는 서울대 35위, 고려대 98위, 연세대 112위, 중앙대 386위, 서강대 411-420위 등이다.

### 발 언 대

## 모교의 랜드마크와 메인게이트

나는 가끔씩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간다. 압구정동 방향에서 동호대교를 건너 옥수역-동대입구역-엠배서더호텔 앞을 지나 종로 3가쪽의 지인을 만나러 간다. 그때마다 차길은 붐비고,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장충체육관 쪽에서 엠배서더 호텔쪽 언덕을 오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내 모교 건물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동대 입구역에서 교문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는 재학생들을 보면 뿌듯한 감회에 젖기도 한다.

하지만 바라다본 모교가 더 훤히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원하게 상징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서울 시민 모두 “동국대학교가 근사하구나”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크고

작은 주택들이 모교 캠퍼스를 가로막아 건물이 보일듯 말듯 해서 안타깝다. 엠배서더호텔 뒤편은 주차장이고, 그 뒤로 다가구주택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데 진즉 이곳을 사들여서 캠퍼스로 확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곳은 한때 달동네였다. 지금은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그런 집들을 매입해 캠퍼스를 늘리고 대로변과 잇대어놓으면 차 드나들기도 좋고, 학생과 시민의 접근성도 용이해 편리한 측면이 많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부동산이란 원래 당시가 가장 비싸다. 그러나 몇년 지나면 그때가 싼다고들 애석해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 매입하기를 바란다. 그것들을 구입해서 부족한 기숙사로 쓰고 또 연구실로 활

용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사들여서 대로변 쪽으로 진출한 뒤 동국대학교의 상징건물을 멋들어지게 들여앉히면 된다. 도심의 대로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펼 수 있는 건물도 앉힐 수 있다.

4대문 안에 있는 종합대학은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가 유일하다. 질푸른 남산의 녹음 속에 자리한 모교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접근성과 인접성, 그에 따른 호환성이 높은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학교발전의 동력이 찾아진다.

모교 건물 재배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이 있겠지만 우선 메인게이트의 컨셉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 차로로만 쓰이는 남문(정문)과 차량통행이 금지된 동문(해화문) 북문(옛 교문) 기숙사문 등 여러 문이 산개됨

으로 해서 혼선이 빚어지고, 정문의 개념도 희박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눈에 훤히 들어오는 가시성 높은 동문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 개발해 놀라운 상징건물 건립과 함께 차도와 인도를 함께 사용하여 결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모교가 개교 110주년을 계기로 1,100억원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모교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다. 동문사회는 물론 종단과 교계가 적극 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를 제안한다. 모교 발전은 우리 동문사회의 열정과 경제적 지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박 대신

(69/73 국문, 주) 동우 대표이사

2016 동국인의 밤 - 12월 13일 (화) 오후 6시 30분, 엠배서더호텔

###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식전행사로 동문특강-장학금 수여식 진행



▲ 식순에 따라 모두 합장한 가운데 '삼귀의례'를 봉행하고 있다.

본회 2016년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임원 및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25일(수) 오후 6시30분 모교 중앙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식전 행사로 차연신(85연영) 동문의 음악 공연, 김종필(82행정, 내일신문 정치부장) 동문의 '동국사랑은 필연입니다'라는 주제특강, 후배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뒤이어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회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전영화 회장은 인사에서 "동창회 역사 이래 초유인 초대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과 성공동문 기업체 견학 등 동문사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우리 동창회가 안정적 바탕위에 올바른 미래를 설계하고 가치있는 동창회로 거듭나는데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규(70경행) 수석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비 사용 내역 및 분열 당시의 회비 관리에 대한 대응 조치 △총동창회 화합을 위한 노력 △동문과 함께하는 동창회의 노력과 활동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원종류 단순화(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회원, 명예회원) △임원수의 명기 △회계연도 개시일(3월1일~2월말→1월1일부터 12월31) 등이다.

김종필 동문은 특강에서 "동국인의 자부심은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이 우리들의 선배라는 점,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에 자리잡은 대학출신이라는 점, 우리 모두가 동국대를 모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문을 연뒤 "삶은 사람의 합성어이며 사람, 즉 인간관계는 소통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행복을 동국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 2016년 가을 학위수여식 거행

서울캠퍼스 1,769명-경주캠퍼스 472명 배출



▲ 서울캠퍼스 한태식 총장(왼쪽)이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모교 2016년 가을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는 8월25일, 경주캠퍼스는 8월26일 각각 거행되었다. 학위수여식에서 서울캠퍼스는 학사 1105명, 석사 591명, 박사 73명 등 총 176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주캠퍼스는 학사 366명, 석사 98명, 박사 8명 등 총 472명이 졸업했다.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이자 불국사 회주인 성타스님에게 불교 발전과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이흥근 (주)연합유리 회장에게는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또 이날 前 포미닛 멤버 허가윤과 前 타히티 멤버 윤정빈 씨는 활발한 연예계 활동으로 학교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공로상을 받았다. 총동창회장 공로상은

동창회 각종 행사에 모범적으로 지원 활동을 한 고미원(의생명과학과)씨에게 수여했다.

#### 4.19 공로자 회장 취임식 축하 전국대학 동창회 대표자격으로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7월21일 오후 2시 국회헌정회관에서 열린 유인학(86/94대학원) 4.19혁명 공로자회장 취임식에 초청받아 전국대학 동창회장으로는 유일하게 축하를 했다.

#### 행복선원 토요일법회 축하 총동창회장 등 동문 다수 참석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9월3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동 행복선원(회주 법타스님) 토요일법회 입제식에 참석, 축하했다. 행복선원은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법회를 갖는다.

**토운**  
TO WOON DESIGN

업 체 명 : 토운디자인      대 표 : 이강훈 (미술학과 92) 010. 6398. 0646  
전화번호 : 02) 567-4558      홈페이지 : www.towoon.co.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9-1번지 은석빌딩 104호

사훈을 **信**으로 **石외동석재**

+건축석공사 +석물·납골당 +자연석·경계석 판매 +토목공사  
www.WDSTON.com

대표 한 동 식 (010-3501-6066)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Tel. 054) 776-9500~3  
경주 사대원 22기 졸, 현 경주 동문회장      Fax. 054) 776-9504  
한동식 대표 경북 최고장인 선정      E-mail. od0404@daum.net

대표전화 **054. 777. 0404**      무료전화 **080. 855. 9500**

# 동문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 '동창회 중점사업' 정착

총동창회가 야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공동문 기업체 견학' 행사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정착해가고 있다. 성공동문들의 기업체 현장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동문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사는 지난 3월22일

KAC(코리아오토글라스)을 필두로 4월25일 세계적 위생 솔루션기업 세스코(CESCO), 6월7일 플라스틱 용기의 세계적 제조업체 동진기업(주), 9월27일 국내 최대의 유리공장인 KCC 여주공장을 차례로 견학했다.

## ■ KCC 여주공장(KCC그룹 명예회장 정상영 동문) 세계 최대 단일공장으로 초일류기업 지향



▲ 정상영 명예회장(오른쪽 서있는 이)이 재학생 테이블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제4차 '성공동문 기업견학' 행사가 본회 고문 정상영(57/61법학)동문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KCC 여주공장에서 열렸다.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자"는 정 명예회장의 경영이념으로 무장된 여주공장은 국내 최대 유리공장으로 국내 소비량의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500여명이다.

이날 행사는 전영화 총동창회장, 모교 법인이사장 자광 큰스님과 양영진 부총장을 비롯한 동문·재학생·교직원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주공장 소개, 홍보동영상 감상, 세계 최대 7호기 및 5호기 용해로 견학, 정 명예회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명예회장과 참가동문 및 재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선후배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기업의 자긍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 명예회장은 "나는 우리 대학이 수도 서울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역사나 전통에 비추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한다"면서 "학교법인, 대학, 동창회,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더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은 재학생들이 자리한 테이블을 찾아가 "취업난 시대에 우수한 후배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정 명예회장은 자광 이사장 등을 위한 공장안내에 직접 나섰다. 견학단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장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1,400도까지 올라가는 7호 및 5호기 용해로에서 재료 투입부터 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공정을 직접 지켜보았다.

1987년부터 가동된 여주공장은 부지 20만평에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365일 24시간 가동하여 일반판유리·코팅유리·기능성유리·강화유리·자동차용 산업유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전 공정이 자동화된 생산라인은 탈진·탈황·전기집진·굴뚝자동감시체계 등의 친환경 설비도 갖추고 있었다.



▲ KCC 여주공장 견학을 마친 동문들이 '동국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 동진기업주식회사(회장 송석환 동문) 플라스틱 용기 세계적 생산기업으로 우뚝



▲ 송석환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직접 생산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제3차 '성공동문 기업체 견학' 행사로 송석환(64/68농경, 본회 고문)동문이 창업하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동진기업주식회사를 방문했다.

6월7일 50여 동문이 방문한 동진기업은 플라스틱 용기제조의 세계적 기업으로 안성공장과 바라공장 등 2곳을 둘러보았다.

먼저 안성 제2산업단지에 있는 안성공장에 도착한 동문들은 "동국대 동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아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송석환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안성공장 견학은 2팀으로 나뉘어 1팀은 공장 견학을, 2팀은 회의실에서 동진그룹의 성장과정과 생산제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청취했다.

제품의 특성상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 있던 다음에 동문들은 덧신과 가운은 물론 머리 전체를 감싸는 모자를 쓰고 에어워셔 장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해 제품이 생산되는 전체 공정을 지

켜봤다.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해외 수십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 16층의 서울사무소가 있으며, 안성에 제1공장, 양주에 제2공장, 김천에 김천공장, 캘리포니아에 미국공장, 연태에 중국공장 등이 있다.

바라공장은 제1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송 회장은 창업 초기 청계천에서 폐비닐을 구입해 재가공하는 도중에 손가락이 잘린 일과 IMF당시 거래회사의 부도로 적자가 쌓여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사세를 확장한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줘 참가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방문기념으로 그림액자 1점을 전달했으며, 송 명예회장은 참가 동문 전원에게 자사제품인 플라스틱 반찬용기세트를 선물했다.



▲ 동진기업을 방문한 동문들이 '동국인 최고'를 외쳤다.

### 초대회장 만해 축전 '동창회장상' 시상



우리 총동창회가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한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30만 동문을 대표해 만해 초대회장을 기리는 축사를 한 뒤 '통일염원 5분발원대회' 최우수상과 '통일염원 노인백일장' 장원자를 각각 시상했다.

8월28, 29일 양일간 서울 성북동 심우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통일문학축전위원회(위원장 선진규 동국대 총동창회 고문) 주최로 동국대 총동창회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서울특별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이 후원했다.

### 홍기영 동문 후배장학금 1억 전달



홍기영(76/83 화공, ㈜영우 회장) 동문이 9월 29일 화공생물공학과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주)영우는 세계 접착테

이프 시장을 선도하며 국내 공급과 해외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올해 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은 화공생물공학과는 각종 기념행사와 학과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과 교수진, 동문 등의 많은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김운락장학회, 경주캠퍼스에 1억원

경주캠퍼스 동국민주산악회가 설립한 김운락장학회(이사장=이종호, 84/88무역)는 6월28일 이대원 총장에게 장학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운락장학회는 지난 1991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故김운락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 86학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 10월15일 “모교 교정에서 만남시다”

86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10월15일(토) 오후 4시부터 모교 중강당 및 상록원 등 교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86학번 동기들은 지난 3월 추진위원장에 김신복(물리), 부위원장에 김성철(전산) 홍석주(건축) 동문, 그 외에 각 단과대별 위원장과 기획·조직·행사·홍보·재무부와 위원장을 선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및 행사내용 등을 준비해왔다.

주요행사로는 △16학번 장학증서 전달 △추억의 영상 관람 △환영공연 △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이 있게 된다.

#### 81학번,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81학번동기회(회장 이재국, 81/87건축, 서일대 교수)는 9월20일 임원회의를 갖고 3년전부터 연례사업으로 진행해온 모교 '동감' 홍보대사들에 대한 기념반지(14K) 선물과 12월2일 총회 겸 송년회 개최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임원들은 내년 4월하순 예정인 '제3회 입학30주년 리멤버 등산대회' 주관 기수로서 성공적 행사준비 대책 등도 협의했다.

### 영화 '인천상륙작전' 6백여명 관람



영화 '인천상륙작전' 단체관람행사가 8월 10일 오전10시30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6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관람행사는 첩보부 대장역을 맡은 이정재(연영99학번)동문이 동문 선후배를 초청한 것으로 동문회합과

자금심 고취에 기여했음은 물론 무더운 여름철에 가을바람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본회 상임부회장 홍종표(94/96행원, 동행라이온스클럽 회장)동문은 6백명분의 간식용 떡을 협찬했다.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대표이사 정수언

www.ehsp.co.kr

**해성약품(주) (주)진선메디칼**

첨단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

대표이사 안형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33-56  
TEL : 043 - 216 - 2541 FAX : 043 - 216 - 2544

### 광주동문회, 60주년 기념행사 추진



▲ 6월 아유회때 회원들은 대흥사 주지 월우스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광주동문회(회장=박태현, 시온문화사 대표)는 9월7일 광주시내 민어랑전어랑 횃집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상호친선과 조직활성화를 다짐했다.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광주동문회 출범 60주년기념 행사 △적립기금 운용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광주동문회는 하계 아유회를 회원 2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6월11일(토) 해남 대흥사 등지에서 가졌다.

### 82학번, 용맹정진 체육대회



82학번동기회(회장 윤병관) 가을운동회가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고양시 원당 풋살클럽에서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용맹팀'과 '정진팀'

으로 나눠 미니올림픽 게임과 장기자랑등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우정을 다졌다.

### 84학번, 체육대회 단합 과시



84학번동기회(회장 최준호) 체육대회가 9월24일 모교 체육관에서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100여명이 참가해 족

구, 피구, 윗놀이, 2인3각달리기, 실내올림픽, 장애물계주등 다양한 경기로 회원간 친목을 도모했다.

### 석림동문회 회장에 성우 스님



동문 승려들의 친목모임인 석림동문회는 6월8일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성우스님(77/81승가, 김제 금산사 주지)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혜충, 자광, 종훈, 혜원스님과 총장 보광스님 등 석림동문회원 87명이 참석했다.

성우스님은 "비구니 기숙사 해광원의 재건축, 석림동문회장의 동국대 이사회 진입, 경주캠퍼스 석림동문회와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집행부로는△수석부회장 종훈스님(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원명스님(조계사 부주지) △재무부장 유승스님(조계종 재무부장) △기획실장 진우스님(정각원 교법사)을 각각 임명했다.

### 여자총동창회 제3회 세미나 개최 차연신 동문 '부동산 특강' 큰 인기



▲ 제3회 세미나가 차연신 동문의 '노후를 위한 재테크 첫걸음'을 주제로 열렸다.

여자총동창회(회장=김영순) 2016-3회 세미나가 9월28일(수) 모교 다항관에서 열렸다. 회원 및 관심있는 동문 등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이자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상담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차연신(85/89연영, 와이에스PMC(주) 대표이사)동문을 초청해 '노후를 위한

재테크 첫걸음'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차 동문이 현장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소액 투자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2차 세미나는 6월9일 대학로에서 연영과 동문이 출연한 '늙은 도둑 이야기' 관람행사로 치러졌다.

### 사회과학대학원 한마음 체육대회



사회과학대학원 울산동문회(회장 강삼춘)가 주최한 '제25회 동국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24일 울산 대현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1백여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나 배구, 족구, 윗놀이, 명랑게임과 장기자랑을 펼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반갑습니다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문효치 동문

# 한국문단 대표 수장으로 '동국문학의 큰 산맥' 자부심 심다

## 최근 풀의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한 시집 '모데미풀' 펴내기도



▲ 서재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문효치 동문

“동국대를 다닌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 기라성 같은 동문들과 캠퍼스에서 우정을 쌓아온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동국문학이 한국문학을 대표 한다는 자부심 또한 크다”

박종화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 현대 한국문학의 대표적 얼굴들이 맡았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에 문효치 동문(국문과 63학번·총동창회부회

장·73)이 선출된 지 1년여, 14,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문단의 대표 수장으로서 전통 동국문학의 산맥을 이어가는 주인공이다.

“동국문학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런 영광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인 동문의 결속과 지원이 컸다고 생각하고 마워하고 있다. 이런 고마움이 헛되지 않도록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다른 역대 이사장보다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간문학과 계간 계절문학 등 두 개의 순수문학지를 발행, 회원들에게 발표지면을 폭넓게 제공하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창작능력 제고를 위한 학술토론회 세미나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워싱턴에서 미주지역 문인과 공동으로 해외문학심포지엄을 가졌다. ‘문학의 한류’에도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문협 산하에 둔 서정문학연구회 남북문학교류회 등 40여 개의 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문학상 운동주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등 15개 문학상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외부문학상인 동리목월문학상 김삿갓문학상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문인들의 활발한 발표지면을 고려해 사재를 털어 ‘계간 미네르바’를 발행해오고 있기도 하다.

문 이사장은 동국대 재학시절 한국

일보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부문 동시 당선한 진기록의 주인공이다. 신춘문예 두군데 동시 당선은 그때까지 한국문학사상 처음있는 일.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문학이 사회적 담론을 이끌었고, 신춘문예의 인기도 폭발적이었다. 수 천대 1의 경쟁력을 뚫어야 해서 사법고시보다 더한 경쟁률을 보여서 신춘문예 4.5수는 보통이었던 시절이다. 그는 이런 어려운 관문을 한해 두 매체에 동시 당선해 동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했다.

문 이사장은 문인협회 이사장에 앞서 국제펜한국본부 이사장으로도 당선돼 4년간 근무했다. 양대 기구 문인단체에 당선된 사례도 문 이사장이 처음이다. 두 기구 모두 직선제다. 문 이사장의 득표수는 역대 이사장들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된 것과 달리 경쟁자보다 배 이상의 득표로 당선돼 전체 문인들의 지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신뢰와 인화, 협력의 정신이 바탕이 됐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작품성이 뛰어난데다 배려와 봉사정신이 체화된 넉넉한 인품 때문에 얻어진 결실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문 이사장은 12권의 시집을 냈다. 초기엔 ‘백제 가는 길’ 왕인의 수염 ‘계백의 칼’ 등 백제를 배경으로 역사 공간을 모티브로 한 시를 썼고, 중기

엔 ‘바다의 문’ 등을 통해 삶의 현장과 개인적 아픔, 상처를 바다라는 소재로 현현시켰다.

지금은 곤충 벌레 풀을 주제로 생명의 송고함을 노래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모데미풀’이라는 12권째 시집을 냈는데 길가에 돌아난 하찮은 풀에서 인생과 생명과 사랑을 찾아낸 시편들이다. 그는 “산과 들에, 도시 골목의 좁은 길가에 무심한 듯 돌아난 들풀은 누구나 쉽게 외면하고 밟고 지나치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과 하찮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안고 피어난 우주적 존엄성을 가졌다”고 말한다.

“동국대를 다닌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하는 문 이사장은 동기인 소설가 조정래, 시인 강희근 류근택 임웅수 하덕조 홍신선, 문학평론가 홍기삼 등 기라성 같은 동문들과 캠퍼스에서 우정을 쌓아온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후배로는 박제천 문정희 정채봉 동문이 있고, 졸업후 만난 이원규 이상문(국제펜한국본부이사장) 후배들과도 동국문학산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명망있는 국문학과 출신들이 세상의 큰 지원군이 되더라도 동문들의 유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홍 <본회 홍보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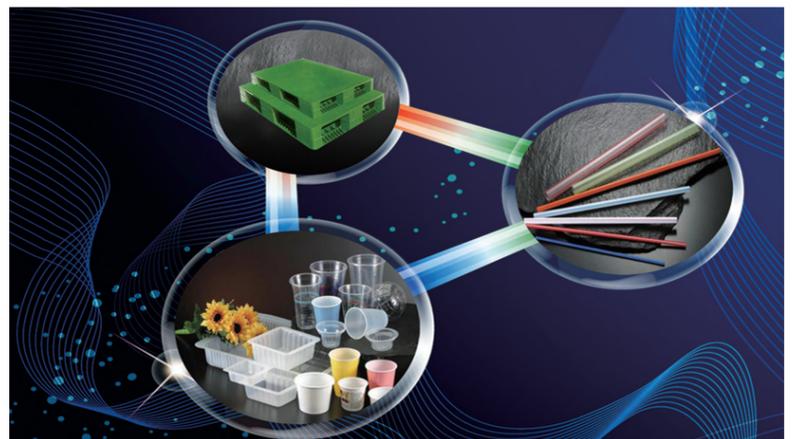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부루나포교원 범명사 명상 박물관 / 인천 불교대학

주지 彌光禪一 (미광 선일)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겸 이사장 군종교구 부교구장  
명상박물관 이사장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인천불교대학 학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인천지부장  
부루나선행회 이사장

(우) 22806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Tel. 032) 577-5108 Fax. 032) 577-8454  
Mobile. 010-3740-9080 E-mail. iam Buddha@hanmail.net  
홈페이지 www.5108.co.kr

# 상경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이 상 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14층 Tel. (02) 557-4757 Fax. (02) 556-3866

■ 만나봅시다 -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동문

#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동국 정치인맥' 화려한 부활 선봉 첫 호남 출신 여당대표라는 상징성으로 대권 반열에도 올라

이정현(78/93정외, 국회의원, 3선) 동문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신임 당 대표로 8월9일 공식 선출됐다. 이정현 동문의 당 대표 당선은 우리 동문 출신 정치인가운데 여야를 통털어 최초의 일로 동국 정치 인맥에 큰 획을 그었다.

그는 9월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A 음식점에서 열린 '이정현 동문 새누리당 대표 당선 축하모임'에서 "동국대 정외과 선배들인 김은하 정재철 김동영 최형우 황명수 동문 등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대를 잇는 한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총동창회(회장 전영화)가 주최한 축하연에서 그는 또 "권노갑 최재구 김영구 선배들 다른 학과 출신 선배님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응원에도 감사하며,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같이 당대표에 올랐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큰 정치인이 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동문을 통해 동국 정치인맥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치를 주름잡아왔던 동국정치인맥이 근래 위세가 약화됐으나 이정현 동문이 집권당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동국정치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이 동문은 "당 대표 당선은 동국대



▲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동문 (사진출처 포커스뉴스)

학풍의 저력"이라고 말했다.

"밑바닥부터 성실성과 진정성, 열정으로 표밭을 갈아온 결과 집권당 대표 자리라는 영광을 안았다. 사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였다. 그런데 꿈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간 집권당 대표라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지난날을 회상했다.

"학과 수업을 마치고 남산을 올라간 적이 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그 많은 빌딩과 무수한 집들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 작은방 하나도 없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속으로 한없이 울었다. 농촌 출신으로서 기가 죽어 살았다. 하

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내 처지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실현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부터 시작해 당대표에 오르기까지 16계단을 밟아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남 곡성에서 출생한 그는 1985년 광주시장 출신인 구용상 전 민정당 의원 비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당 간사병→간사→간사갑→차장→부장대우→부장→부국장 대우→부국장→국장대우→국장→부대변인→수석부대변인→국회의원→청와대 홍보수석→최고위원의 단계를 거쳤다. 그리고 30년만에

여당 대표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했다.

"모교 재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다. 나같은 무수저도 꿈을 꾸니 이룬다. 아직도 큰 꿈을 달성해가는 도정에 있지만 여러분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후배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2012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도전장을 냈지만 아깝게 분패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2014년 7월 전남 순천·곡성 재보선에서 도전,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총선에서 한번 더 신화를 쓰고 3선의원이 됐다.

이번 대표직에 오르면서 여당에선 첫 호남출신 대표라는 진기록도 남겼다. 그의 특십이자 동국정신의 저력의 결과다. 새누리당의 불모지라는 호남출신이 대표로 선출된 것은 단숨에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말해준다.

좌우명은 대공심대공심(大空心大公心)이다. 뜻은 크게 비우고 크게 봉사하는 마음이다. 그는 동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애교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관호 <분회 사무국장>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韓榮貿易株式會社

Hanyoung Trading Co., Ltd

대표이사 회장 **한영휘** (경제학 61卒)

- 경제학과 총동창회 3대 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독교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신도연맹 7대 이사장 / 회장
-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위원회 상임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원로장로

www.hanyoungt.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 (한영빌딩)

Tel.	(02) 571-1122	Fax.	(02) 571-1121
Mobile.	010-3757-2777	E-mail.	hany@hanyoungt.com

###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진출

홍영표-환경노동위원장, 유재중-안전행정위원장



홍영표 동문



유재중 동문

6월13일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홍영표(78/96철학) 동문은 환경노동위원장, 유재중(81/85경주캠행정) 동문은 안전행정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모두 18명이다.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 더민주) 동문은 3선 의원으로 18대부터 국회에 진출했으며 민주당 원내 대변인, 민주통합당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재중(부산 수영, 새누리) 동문도 18대부터 국회에 진출한 3선 의원으로 부산광역시 의원, 부산 수영구청장,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다.

### 부산경찰청장 허영범 치안정감

대구경찰처장 김상운 치안감



허영범 동문



김상운 동문

◆ 허영범(79/85경행)동문이 9월 19일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부산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치안정감 자리는 6개뿐인 경찰 고위직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이다. 경찰간부후보생 33기(1985년)로

경찰청 수사기획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수사통으로 2014년엔 치안감이 되어 경찰청 보안국장, 대구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 김상운(78/85경행)동문이 제 27대 대구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경찰간부후보생 32기로 임용되어 서울청 성동경찰서장, 서울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동문은 소통의 리더십과 함께 갈등 상황을 중재·조정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범우사 50주년 자축연



종합출판 범우사(주) 회장 윤형두(55/63법학, 본회 고문)동문은 9월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범우사 50주년 및 윤형두회장 출판계 입문 60년' 자축연을 가졌다.

#### 주거복합단지 '학성 파크디아채' 시공



김석만(89/90사대원, (주)신한 회장, 사회과학대학원 동창회장)동문은 9월24일 울산시 학성공원에 건설중인 주거복합단지 '학성 파크디아채'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가졌다.

####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박재신(77/81공경) 동문이 6월 10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감사원 지방건설 감사단장 등 감사원에 서 잔뼈가 굵었다.

#### 파라미타 7대회장



심산스님(82/86선학, 부산 흥법사 주지)이 6월8일 종단의 청소년 육성단체인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제7대 회장에 임명됐다. (사)동련 제2대 이사장으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왔다.

#### 철원문화원장



양원석(58/63농학)동문이 제11대 철원문화원장에 선임됐다. 철원군의회 의장, 철원읍 체육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4년.

#### 불교여성개발원 정기 세미나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장 박순(66/68불교) 동문은 "우리 아이들, 과연 행복한가? : 불교에서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회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 코스메카코리아 사장



지재성(78/83공경) 동문이 7월25일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메카코리아 사장에 선임됐다.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에서 35년간 근무했다.

####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82경행)동문이 제30대 광주지방교정청장에 취임했다.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공직에 입문, 인천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등을 지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류수택(60경영)동문이 9월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영주택건설 사장 등을 역임했다.

#### 동부건설 공동 대표이사



이중길(71경제)동문이 9월12일 동부건설(주)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1977년 KCC(고려화학)에 입사, 영업본부장(부사장)을 지냈다.

#### 문체부 초대 관광정책실장



황명선(77/83정외)동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관광정책실장에 6월3일 부임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본부장과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지냈다.

#### 대구·경북 국회의원 보좌진 회장



권형석(85경주 영문, 새누리당 김석기의원보좌관) 동문이 최근 대구·경북 국회의원 보좌진 단체인 '보리모임'의 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2016한중대표소설선집'



한중문예콘텐츠협회 회장 신상성(63/70국문, 용인대 명예교수) 동문이 '2016한중대표소설선집'을 펴냈다. 소설집은 한국측 10편과 중국측 10편을 양국에서 동시번역해 간행됐다.

####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장



옥인호(73행정) 동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구시, 경북대 등 3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초대 센터장에 선임됐다.

####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김상일(79/83정외)동문이 8월 초 경기도 국제관계대사에 임용됐다.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주시카고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총괄했다.

#### 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



최상화(05/07행원) 동문이 7월19일 한국남동발전(주) 신입 상임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춘추관 관장을 지냈다.

#### 한국베트남우호협회회장



박수천(66/77행정, 한국정경문화연구원 대표) 동문이 8월9일 한국베트남우호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월남전참전자회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냈다.

#### 창원세계사격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이병국(75/81전자공학,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동문이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임용됐다.

####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최진열(79/83농경, 전 기업은행 동해지점장) 동문이 8월초 초대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 미소금융재단 춘천지부장에 부임했다.

#### 연합뉴스 신입 감사



정한중(90/98회계, 공인회계사) 동문이 6월 10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입 비상근 감사에 선임됐다.

포항시 북구청장



황병한(95사대원)동문이 7월1일 포항시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1979년 공직에 들어와 포항시 경제산업국장, 평생학습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05관광경영) 동문이 7월1일 경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제7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문화재청 차장



박영근(06문예원) 동문이 7월1일 문화재청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 대통령표창과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리우올림픽 사격 은메달



김종현(04/08사회체육, 창원시청)동문이 8월12일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사격 50m 소총복사 결선에서 208.2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프로야구 통산 2,000 안타



박한이(97/03경영, 삼성 라이온즈)동문이 프로야구 역대 9번째 통산 2000안타 고지에 올랐다. 데뷔 첫해부터 16년 연속 3자릿수 안타도 기록했다.

경찰청 총경 인사 발령 (2016년도 하반기)

- △곽영진(87경행) 경기북부청 경비교 통과장
- △김숙진(00행원) 경기북부청 경무과장
- △김태형(89경행) 제주청 여성청소년과장
- △김택수(87경행) 경찰대학 치안정책 과정 교육
- △김호승(87경행) 충남청 보령서장
- △김희중(85경행) 강원청 동해서장
- △류성호(91행원) 강원청 태백서장
- △마경석(89경행) 충남청 세종서장
- △박영수(83전산) 경북112종합상황실장
- △신상석(78경행) 경기남부청 이천서장
- △심덕보(97사대원) 경북 영천서장
- △오충익(86경행) 제주청 형사과장
- △우형호(75경행) 전남청 보안과장
- △이동민(82경행) 전북청 보안과장
- △이을신(84경행) 제주청 경무과장
- △이호영(85경행) 경기남부청 홍보담당관
- △임병숙(84국사교육) 인천청 112종합상황실장
- △장종근(03행원) 제주 해안경비단장
- △전진선(79경행) 인천청 경무과장
- △정성일(89경행) 전남청 함평서장
- △주진우(14경찰사법대학원) 제주청 경비교통과장
- △최보현(92법학)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한도연(83경행) 전북청 정보화장비과장
- △황석현(85경행) 전남청 형사과장

(성명 가나다 순)

언론에 비친 동국인

한우삼 태양금속 회장 - 60년 넘게 한우물



한우삼(63/70 농학)동문이 회장 으로 있는 태양금속공업(주)는 반세기 넘게 지속 성장한 기업승계

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다. 창업 2세 한우삼 회장과 그의 아들 한성훈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 회장은 1971년 말단 품질관리 직원으로 입사해 1991년 사장이 됐다.

2003년 회장 취임 첫째 1100억원대였던 매출은 네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는 1994년 동탑산업훈장을 시작으로 2004년 은탑산업훈장, 2013년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가족 같은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술 자립을 통해 제품을 국산화한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한국경제 7월 21일자 발취)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 GBC 프로젝트 총괄지휘



김용환(74/79 무역) 동문은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기획조정실은 30여개 주요 계열사 등 50여 개 전체 계열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조율하면서 그룹 전체를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다.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짓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현대차는 GBC를 이르면 2017년 초부터 착공해 2021년 말쯤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발취)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발취)



辯護士 / 辦理士

吳洙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321-4066 Fax.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인쇄로 제4차 산업혁명을 활짝 열겠습니다.

본 보는 정보의 실크로드로 산업을 연결하고 개발(C&D)한다.

인쇄산업신문과 함께라면 이미 치열한 산업사회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목말라 있는 인쇄산업 무한경쟁시대를 개척하는 유일신문! 32~44페이지 섹션전문신문! 귀사의 성장과 함께 끝까지 신뢰와 의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필수과목 인쇄산업신문 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빠른 언론! 국내 유일신문 인쇄산업신문 으로 귀사의 정보력을 배가 시키십시오. 그리고 오피니언이 되십시오.



구독 및 광고 문의 : (02) 2264 - 9791

대표 박종세 (분회 상무이사·경영 92학번)

신속한 뉴스, 다양한 정보, 깊이 있는 신문 www.korpin.com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1가 89-1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702, 802호 전화 : (02) 2274-5168~9 / 팩스 : (02) 2263-9721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 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금액 · 가나다순

2016년 5월 20일 ~ 2016년 9월 30일 접수분 >

### 특별회비



송석환(64농경) 1,500만원



원용선(59영문) 200만원



월탄스님(64불교) 200만원



배시영(58경제) 115만원



심경도(57영문) 100만원



윤일균(67행정) 100만원



이석용(54정치) 100만원



이태영(51사학) 100만원

### 부회장 회비



장왕스님(64인철) 100만원



고공규(70정외) 100만원



공석둔(79회계) 100만원



구은수(78경영) 100만원



김명열(68경영) 100만원



김용규(70농경) 100만원



김용정(56철학) 100만원



김진문(64경영) 100만원



김진선(71행정) 100만원



민병덕(74경영) 100만원



박대신(69국문) 100만원



박영순(92산원) 100만원



범운스님(95불원) 100만원



범조스님(70불교) 100만원



오정석(72농학) 100만원



육기동(61식공) 100만원



이강호(74행정) 100만원



이재창(00경영) 100만원



이창규(62경영) 100만원



이희붕(99불원) 100만원



임규영(68경제) 100만원



정광훈(65상학) 100만원



정해통(78경영) 100만원



조은구(64경제) 100만원

### 발전기금



조중미(81교육) 100만원



진각스님(09사대원) 100만원



한우삼(63농학) 100만원



홍종표(94행정) 100만원



황경한(87교원) 100만원



이정재(99연영) 220만5천원



홍종표(94행정)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김낙돌(64경제)
- 김선근(65인철)
- 명성스님(64불교)
- 박도근(61상학)
- 박만갑(64정외)
- 박상규(59국문)
- 방조원(77행정)
- 신현태(54경제)
- 심현식(59상학)
- 안병창(59상학)
- 윤길한(64정외)
- 윤청광(59영문)
- 이순우(60경제)
- 이재형(64불교)
- 장근도(59경제)
- 전진표(60인학)
- 정용길(63행정)
- 지만호(87행정)
- 최덕현(59생물)

#### 부회장 50만원

- 김중서(03대학원)
- 상임이사 20만원
- 고천석(76정외)
- 김상우(82경영)
- 김상원(78경영)
- 김정길(64인철)
- 김철성(65농학)
- 김현권(64경제)
- 남만우(01사대원)
- 노환숙(67경영)
- 박태원(78법학)
- 박학도(69무역)
- 방재홍(79경영)
- 손일환(93사대원)
- 안용배(75식공)
- 유경희(71미술) 30
- 이건열(82경영)
- 이상명(83경영)
- 이윤훈(73정외)

#### 이사 10만원

- 임예진(78영학)
- 정사균(95사대원)
- 지형운(77식공)
- 최용환(64농학)
- 최우봉(79전산)
- 한규범(78경영)
- 허봉주(87경영)
- 홍선기(69정외)
- 김건작(65식공)
- 김교필(76화학)
- 김기항(68위생공학)
- 김도연(08문예원)
- 김미현(13행정)
- 김상중(62농경)
- 김수웅(64경제)
- 김영석(87법학)
- 김영희(71식공)
- 김완규(89불교)
- 김진길(72행정)
- 류봉규(73농학)

#### 박덕진(90법학)

- 박세현(80행정)
- 박수열(89행정)
- 박시역(60법학)
- 박영호(64경영)
- 박현우(00사대원)
- 배보영(97불원)
- 배상덕(82경제)
- 백요희(81교육)
- 백용운(86수교)
- 사기순(84국문)
- 성백영(07행정)
- 손양호(70불교)
- 송경옥(84연영)
- 안재근(77경영)
- 오수환(84경제)
- 원중희(76농경)
- 이경현(64상학)
- 이상호(60국문)
- 이상훈(86행정)
- 이상만(64경제)
- 이정길(59경제)
- 이춘자(95경영)

#### 이호근(84경제)

- 임병해(71경영)
- 임수근(66경영)
- 정호경(95불원)
- 주상길(98경영)
- 진성스님(04불원)
- 차진근(78건축)
- 최병근(84경영)
- 최병순(04국제통상)
- 한상태(76행정)
- 한종명(77식공)
- 홍훈우(65농학)
- 각원사
- 강경호(03국문)
- 강무등(64농경)
- 강재홍(84식공)
- 고상영(85전산) 6
- 고성훈(79사학)
- 고승남(84경영)
- 공덕사

#### 연회비 3만원

- 공진식(57경제)
- 관오사
- 관음사
- 관음사
- 광덕사
- 길기숙(85전산)
- 김승진(85지교)
- 김강일(75사학)
- 김경자(92대학원)
- 김동인(63화학)
- 김면수(79행정)
- 김문관(80회공)
- 김범동(92무역)
- 김봉수(64통계)
- 김상일(83농학)
- 김성규(56경제)
- 김성연(87통계)
- 김영호(82경영)
- 김영환(58경제)
- 김홍근(76공경)
- 김홍성(93교육)
- 김용운(95문예원)

#### 김재덕(84경제) 10

- 김재복(72경영)
- 김정인(80행정)
- 김종길(92윤리) 9
- 김중덕(66경영)
- 김중민(80회계)
- 김중배(82수교)
- 김중삼(61식공)
- 김중수(82영문)
- 김중택(86대학원)
- 김중호(수학)
- 김찬동(96경영)
- 김철수(73경제)
- 김한진(64상학)
- 김현길(71무역)
- 김형식(00경영)
- 나덕찬(84회계)
- 남윤지(80사회)
- 남장사
- 내원사
- 내원사
- 노기철(89경영)
- 대용스님(88선학)

#### 대용스님(98불원)

- 덕림사
- 덕운사
- 도덕암
- 동학사
- 무량사
- 무학사
- 문계술(88불교아동)
- 문호(64화학)
- 문봉규(57경제)
- 미륵사
- 민현호(82영문)
- 박덕성(66식공)
- 박두호(63경영)
- 박병환(82물리)
- 박성남(71지교)
- 박성진(60정치)
- 박영화(80승가)
- 박익주(59정치)
- 박재원(57경제)
- 박점식(67정외)
- 박지환(60경영)
- 박진숙(72가교)

#### 박흥원(83건축)

- 박희익(63상학)
- 반야사
- 배승환(76물리)
- 백담사
- 법륜사
- 변유근(67법학)
- 보광원
- 보덕사
- 보문사
- 보문사
- 복구암
- 봉갑사
- 불락사
- 사현스님(02불원)
- 삼선교원
- 서정록(68수학)
- 석련사
- 소부순(00경영)
- 손병성(80화학)
- 손시익(97연원)
- 송부용(78농경)
- 송부자(61사학)

#### 송성환(66경제)

- 송운하(07행정)
- 수경스님(78불교)
- 수국사
- 수도사
- 시방사
- 신경애(81영문)
- 신범철(55물리)
- 신용인(84행정)
- 신용준(60국문)
- 신우철(67경영)
- 신원사
- 심경용(67법학)
- 쌍계사
- 쌍봉사
- 안심사
- 안심사
- 안창영(60인학)
- 안희백(71토목)
- 양승철(56법학)
- 엄기환(89일문)
- 여환준(67법학)
- 연화사

회비납부자 명단(12면에서 계속)

영선사	이성민(92전자)	정학주(64법학)	홍 정(01행정)
영안스님(00행원)	이연신(69철학)	정해욱(02사대원)	홍중현(82연영)
영화사	이영환(88경원)	조병구(67식공)	홍주연(83임학)
오중수(85건축)	이운길(73정외)	조병권(85경원)	황국성(84무역)
오해성(96문예원)	이운길(76경행)	조석래(75전자)	황선관(66경행)
옥건호(67식공)	이인화(02국교)	조선주(81행원)	황선규(66통계)
웅천사	이재식(73건축)	조성대(75수교)	황윤걸(60임학)
운산스님(60불교)	이재형(79임학)	조성철(81토목)	
원종대(61정치)	이정분(00불원)	조준수(87경원)	
월봉사	이종만(05국제통상)	조한구(67상학)	
월서사	이종인(03대학원)	조한운(61상학)	
유광희(64응생)	이창섭(61상학)	조형규(65임학)	
유두상(70경제)	이충환(71통계)	죽림정사	
유상빈(70행정)	이태재(79경영)	지웅중(76건축)	
유성모(85전자)	이해규(57법학)	진홍사	
유영근(90경원)	임무형(78회계)	채택수(64대학원)	
유지훈(77행정)	임미영(03경영)	천관영(02정보관리)	
유환식(54경제)	임용한(83전산)	최관호(84경행)	
의림사	임운기(60농학)	최귀현(64농학)	
이경수(88토목)	임준희(87사회)	최수경(95한외)	
이관숙(08행원)	장광수(80경영)	최영숙(96영문)	
이규현(61경제)	장보선(87교원)	최예형(53경계)	
이덕일(92불원)	장성관(54국문)	최중하(68경영)	
이동식(83무역)	장세용(89회계)	최진우(77행원)	
이득순(05경영)	전익홍(85법학)	최철영(64행정)	
이맹우(91불원)	정대연(64연영)	칠불사	
이면규(81무역)	정석원(76경제)	통천사	
이범주(967계)	정석원(63상학)	편유정(88의학)	
이병직(71통계)	정순구(70공경)	학도사	
이상진(96경영)	정영자(03사대원)	홍기표(58정치)	
이석구(86경제)	정차술(86행원)	홍법사	
이선래(94행원)	정창현(66경영)	홍성표(00사대원)	

발전기금

김종필(82행정) = 12만원(3만\*4회)  
 동명사 = 10만원(2만\*5회)  
 오선호(84영문) = 6만원(3만\*2회)

특별회비

양순옥(82윤리) = 6만원  
 이원재(83경제) = 5만원

장학금

김병우(65응생) = 50만원  
 유경희(71미술) = 50만원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모교는 7월15일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에서 선정대학에 30억원 내외로 지원하는 평단사업은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발전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모교는 경찰행정 및 형사사법 분야 강점을 기반으로 치안과학 융합학과와 사회복지·상담·보건을 융합한 케어복지학과를 신설하고, 현재 사회과학대학 소속인 글로벌무역학과를 9월 만들어질 평생교육 단과대학 소속으로 변경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모교 교수 9명 정년 퇴임

모교 전임교원 9명이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이날 퇴임한 서울캠퍼스 교원은 △불교학부 해주스님(1990.9.1 부임, 정각원장 역임) △철학과 최인숙(1996.9.1 부임, 도서관장 역임) △국제통상학부 김일중(1985.7.1 부임, 국제화단장 역임) △박정극(1988.9.1

부임, 학술부총장 역임) 교수 등 4명이다. 경주캠퍼스는 △인문학부 배의용(1988.3.1 부임, 인문과학대학장 역임) △미술학과 이점원(1986.3.1 부임, 인문과학대학장 역임) △안전공학과 류부형(1994.9.1 부임, 학과장 역임) △행정경찰공공학과 김영종(1985.3.1 부임, 부총장 역임) △수학교육과 신중문(1981.3.2 부임, 자연과학대학장 역임) 교수 등 5명이다.



해주스님 불교학부



최인숙 교수 철학과



김일중 교수 국제통상학부



박정극 교수 화공학부



배의용 교수 인문학부



이점원 교수 미술학과



류부형 교수 안전공학과



김영종 교수 행정경찰공학과



신중문 교수 수학교육과

회비는 1년에 한번 ... 회계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여러분의 정성은 동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고문 1백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부회장 1백만원
- 이사 1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년회비 3만원

납부방법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2-718184(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국민은행 006001-04-237869(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지로납부 : 7500891(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총동창회 사무처

- 전 화 : 02)733-0302, 0303 / 733-3991, 3993
- 팩 스 : 02\_733-0306 / 732-3992
- 이 메 일 : dongguka@naver.com
- 홈페이지 : www.dongguk.info / www.dongguk.or.kr

www.guro.go.kr



구로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Fax. (02) 860-3010  
 Mobile. 010-4107-0945 E-mail. leesung@guro.go.kr

(주) 신일양회

(주)진영기업(레미콘) / (주)신일R&C

대표이사 회장

김 동 규

(정치외교학과 81卒)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67, 천수빌딩 507호 (수표동)

Tel. 02-2279-1292, 02-2278-5967, 02-2275-4571  
 Fax. 02-2278-5968 Mobile. 010-5239-0282  
 E-mail. kdk0282@naver.com

**Youngwood** <sup>digital</sup>

차별화된 고객 만족의  
Total IT Solution & Service Provider로  
영우디지털이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Hardware**  
Hewlett Packard Enterprise, NetApp

**Software**  
ORACLE, Microsoft, vmware

**Network**  
Cisco

**Cloud Computing**  
Ycloud

(주)영우디지털  
<http://www.youngwoo.co.kr>

**전국 19개 앰배서더 호텔에서  
최상의 가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호텔 전문 그룹 앰배서더와  
세계적인 호텔 운영 기업 프랑스 아코르가 만나  
럭셔리 특1급 호텔부터 비즈니스 호텔까지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앰배서더와 아코르가 함께하는

그랜드 앰배서더  
경원재 앰배서더  
풀만 앰배서더  
노보텔 앰배서더  
머큐어 앰배서더  
이비스 앰배서더

**ambatel.com**  
이제 예약은 편리해지고 혜택은 커진 ambatel.com에서 앰배서더 호텔을 만나보세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 풀만 앰배서더 창원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독산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강남 /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강남 /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명동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 /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서면 /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 이비스 버젓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 이비스 버젓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AMBASSADOR | ACCOR HOTELS**



대표이사 김세준  
(서울이과대학 화학과 75卒)



본사 & 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17-1  
반월공단 B1-90 제일모피

TEL : 031-491-7691~3  
FAX : 031-491-7694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102-1  
제일빌딩 4층 제일모피

TEL : 02-2698-2531  
FAX : 02-2698-2532

●제일모피 서울매장 약도●



SAMGONG GEAR IND. CO., LTD.



ISO/TS 16949 Certification

SINCE 1967

‘세상을 움직이는 삼공기어’

The best car's in the world,  
driven by Samgong

▶ 201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산업포장 수상



Gear Manufacturer

- '2012 으뜸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 '2012 취업하고 싶은 기업'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정
- '인천시 비전기업' - 인천시 비전기업협회 선정
-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삼공기어공업주식회사 회장 형종호(법학 56/61) www.samgong.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고개로 654-64(고잔동 741-4) TEL : 032-821-3030 FAX : 032-821-3039

TWOHIM

이건 뭐지?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투힘

BiteCradle Mini

QuadPole Mini

대량구매 할인 (고객선물용)  
☎ 031.309.0878



주식회사 투힘  
www.twohim.com

NAVER  
투힘 검색

www.twohim.com

#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No.1 결혼정보 엔노블



대표상담(무료)  
**1577-2050**  
www.nnoble.co.kr

결혼을 잘 하고 싶은 동국대학교 동문은 바로 전화주십시오.  
동문/가족을 위한 특별한 혜택까지 준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동문전용상담 02-3445-2557**



###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국내 최고의 12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한국외대,  
육군사관학교, 고신대 의대, 아주대 의대, 인제대 의대, 중앙대 의대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수준높은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3:1 책임관리-상담 매니저, 매칭 매니저, 서비스 지원팀의 삼위일체 관리
- 프로필 안심 보증제-프로필이 허위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